

---

# 주요 현안 분석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102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	115

#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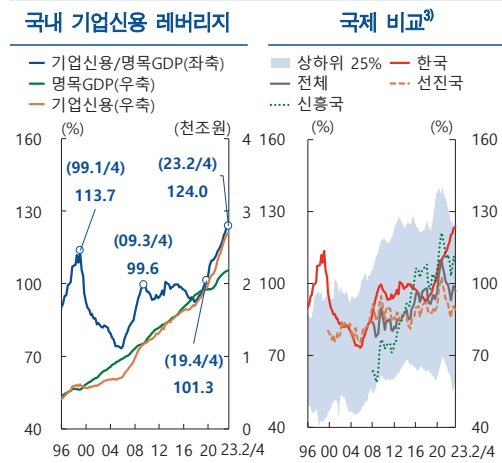
1. 검토 배경
2. 부문별 기업신용 확대 특징
3. 기업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4. 과거 위기 시와의 비교
5. 평가 및 시사점

## 1. 검토 배경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 및 채권 등 신용이 큰 폭 증가하면서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sup>2)</sup> 비율<sup>3)</sup> (corporate credit-to-GDP, 이하 ‘기업신용 레버리지’)이 2023년 2/4분기말 기준 12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 주요국의 기업신용 레버리지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동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하였다(그림 I-1).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당시 경험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기업신용이 양적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신용이 급증하였던 코로나19 이후 기간을 중심으로 최근 기업신용 확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입금의 분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그림 I-1. GDP<sup>1)</sup> 대비 기업신용<sup>2)</sup> 비율



주: 1) 당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 합산 기준  
 2)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 중 채권, 대출금, 정부융자 합산 기준  
 3) BIS 신용통계에 포함된 43개국 기준. 한국은 신용통계에 포함  
 자료: 한국은행, BIS

## 2. 부문별 기업신용 확대 특징

기업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코로나19 전후에 평균 4.8%에서 9.9%로 상승하였다. 기업신용 항목별로는 채권 및 정부융자<sup>4)</sup>보다는 금융기관 대출금, 기업특성별로는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 신용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표 I-1).

표 I-1. 코로나19 전후<sup>1)</sup> 기업신용 증가율 평균<sup>2)</sup> 비교 (%)

	기업신용	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민간기업	공기업
코로나19 이전	4.8	5.3	3.8	6.2	5.0	4.1
코로나19 이후	9.9	11.9	4.8	10.1	10.4	6.9

주: 1) 코로나19 이전은 2010년 1/4분기에서 2019년 4/4분기, 코로나19 이후는 2020년 1/4분기에서 2023년 2/4분기를 의미  
 2) 기간중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국민소득, 자금순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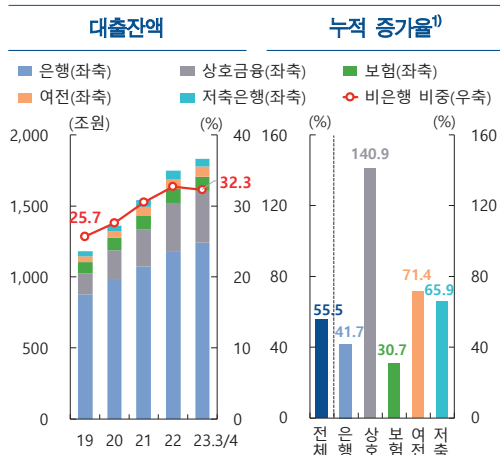
1) 본고는 편도훈·허정(안정분석팀)이 작성하고,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기업신용은 일반적으로 자금순환통계상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 중 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 잔액의 합계로 정의한다.  
 3)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기업신용 잔액을 명목GDP의 당분기 및 직전 3분기 합산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정부융자의 평균 증가율(전년동기대비)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기업신용 전체에서 정부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기간중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년말 5.2% → 23년 2/4분기말 5.2%).

## 가. 금융기관 대출금<sup>5)</sup>

### 비은행 및 중소기업 대출 큰 폭 증가

2023년 3/4분기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1,241.0조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1.7% 증가(+365.2조원)하였으나 비은행 기업대출(591.7조원)은 동 기간중 95.4% 증가(+288.9조원)함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말 25.7%에서 2023년 3/4분기말 32.3%로 상승하였다. 특히, 비은행권 중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기업대출이 2019년말 대비 140.9% 증가하여 대출잔액이 151.8조원에서 365.8조원으로 확대되었다<sup>6)</sup>(그림 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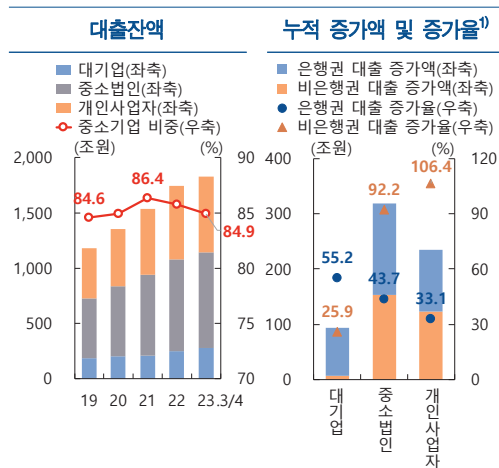
그림 I-2. 코로나19 이후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추이



주: 1) 2019년말 대비 2023년 3/4분기말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증가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차주 기업의 규모별로는, 2019년말 이후 대기업 대출이 총 51.3% 증가(+93.5조원)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각각 58.4%(+318.8조원) 및 51.8%(+234.6조원) 증가하여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84.9%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중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비은행권<sup>7)</sup> 대출이 전체 대출 증가 규모의 약 50%를 차지하였다(그림 I-3).

그림 I-3.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추이



주: 1) 2019년말 대비 2023년 3/4분기말 은행 및 비은행의 기업규모별 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부동산 관련 · 코로나19 피해업종 대출 증가

기업대출(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기준)의 증감 내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업종과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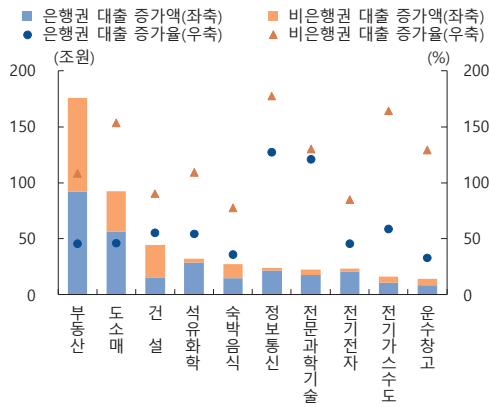
5) 본고에서는 자금순환통계를 기준으로 기업신용 전체 동향(잔액 및 명목GDP 대비 비율)을 평가하였으나, 금융기관 기업대출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기 업무보고서와 산업별 대출금(예금취급기관) 등 통계도 함께 활용하였다. 각 통계마다 대출 항목 및 금융업권의 포괄 범위가 다르므로, 통계별로 기업대출 잔액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도 2019년말 대비 각각 71.4% 및 65.9% 증가하여 은행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7) 2023년 3/4분기말 비은행권이 취급하는 전체 기업대출의 94.0%가 중소기업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확대가 중소기업대출의 큰 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업(+175.7조원)과 건설업(+44.3조원) 대출 증가 규모가 분석대상 업종<sup>8)</sup> 전체 대출 증가 규모(+567.4조원)의 38.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이들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이 2019년말 대비 거의 2배 규모로 확대<sup>9)</sup>되는 등 이들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중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경우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 영향으로 대출이 각각 92.7조원과 27.5조원 증가하였다(그림 I-4).

그림 I-4. 코로나19 이후 주요 업종별 기업대출<sup>1)</sup> 증감<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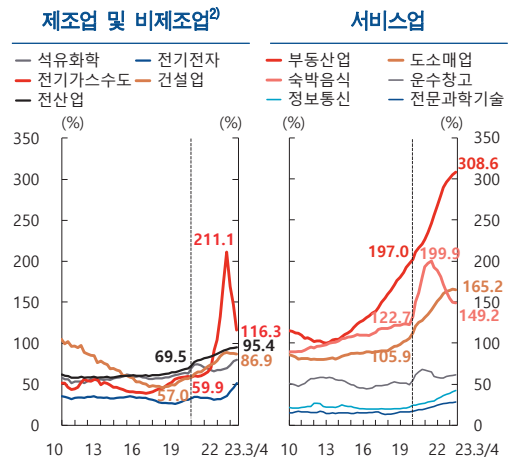


주: 1)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기준  
 2) 2019년말 대비 2023년 3/4분기말 업종별 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이러한 산업별 대출 증가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산업별 생산 GDP(명목, 4분기 합산 기준) 대비 산업별 대출의 비율(이하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sup>10)</sup>')을 분석하였다. 먼저 부동산업의 경우 대출 레버리지가

2019년말 197.0%에서 2023년 3/4분기말 308.6%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9년말 대비 부동산업 대출이 60.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소폭 증가(3.6%)에 그친 데 기인하였다. 건설업의 대출 레버리지도 동 기간중 57.0%에서 86.9%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산업 평균 대출 레버리지(95.4%)를 하회하고 있다. 한편, 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과 금융지원 증대로 대출 레버리지가 2019년말 122.7%에서 2021년말 199.9%까지 상승하였다가, 2022년 이후 업황 개선 및 대출 증가세 둔화<sup>11)</sup>로 2023년 3/4분기말 149.2%로 하락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출 레버리지가 2019년말 105.9%에서 2023년 3/4분기말 165.2%까지 상승하였다(그림 I-5).

그림 I-5. 주요 업종별 GDP 대비 기업대출 비율<sup>1)</sup> 추이



주: 1) 산업별 생산GDP(명목, 4분기 합산) 대비 대출금 비율  
 2) 서비스업을 제외한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비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8) 기업대출의 업종별 현황 분석을 위해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산업은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업(금융보합업, 공공행정서비스 제외),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업만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9) 부동산업 대출 (조원) : 19년말 278.6 (은행 201.3, 비은행 77.3) → 23년 3/4분기말 454.2 (은행 293.3, 비은행 161.0)  
 건설업 대출 (조원) : 19년말 59.8 (은행 27.9, 비은행 31.9) → 23년 3/4분기말 104.1 (은행 43.3, 비은행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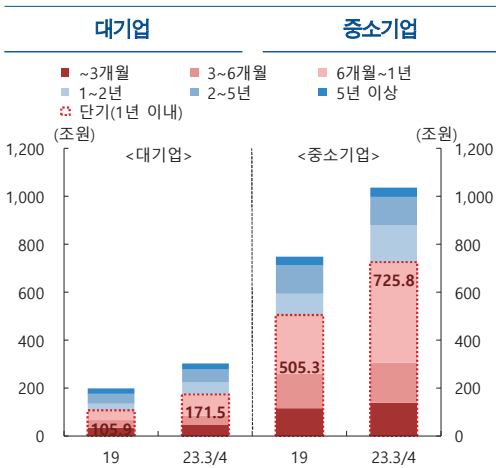
10)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는 개념상 기업신용 레버리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과 동일하나, 동 비율에는 채권 및 정부유자를 제외한 대출금만 포함되며 자금순환통계가 아닌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사용하여 비율 값에 차이가 있다.

11) 숙박음식업 명목GDP(4분기 합산) 누적 증가율: 19년말~21년말 -15.4%, 21년말~23년 3/4분기말 43.6%  
 예금취급기관 대출금 누적 증가율: 19년말~21년말 32.5%, 21년말~23년 3/4분기말 11.5%

## 은행 단기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 상승

은행의 기업대출<sup>12)</sup>을 잔존만기 구간별로 살펴보면, 2023년 3/4분기말 현재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은 은행권 기업대출의 67.0%인 897.3조 원으로, 은행권 기업대출 총 잔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대출 비중이 코로나19 이전(2019년말 61.2조원, 64.8%)보다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단기대출(+220.5조원)이 대기업 단기대출(+65.6조원)보다 더 큰 폭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단기대출 비중(2023년 3/4분기말 70.0%)이 대기업(57.0%)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6).

그림 I-6. 은행 기업대출<sup>1)</sup>의 잔존만기 구간별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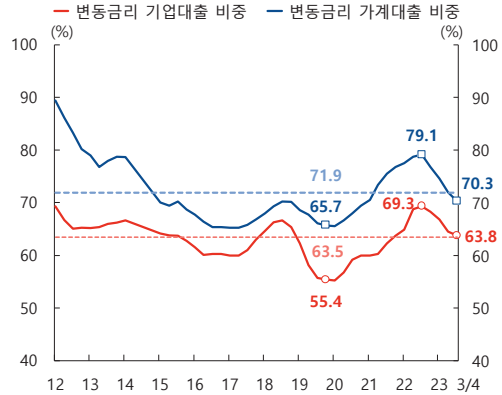


주: 1) 금융보험업 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은행) 업무보고서

한편, 은행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19년말 55.4%에서 2022년 3/4분기말 69.3%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고정금리대출의 신규 취급이 증가<sup>13)</sup>함에 따라 2023년 3/4분기말 현재

63.8%로 하락하여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63.5%) 수준까지 회귀하였다(그림 I-7).

그림 I-7. 은행 기업대출의 변동금리대출 비중<sup>12)</sup>



주: 1) 잔액 기준  
2) 점선은 변동금리대출 비중의 장기평균(2012년 1/4분기-2019년 4/4분기)  
자료: 한국은행(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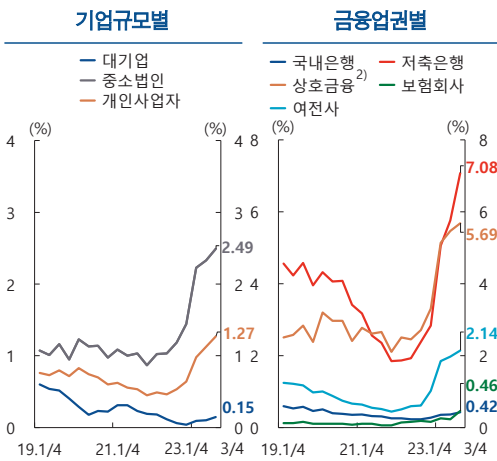
##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 증가

기업대출의 부문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2023년 3/4분기말 현재 중소기업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2.49%, 1.27%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 0.15%를 크게 상회하였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 및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각각 7.08%, 5.69%, 2.14%로 전년보다 상승하였다(그림 I-8).

12)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세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은행의 기업대출(금융보험업 포함)을 기준으로 만기구조 및 금리 분포 관련 분석을 진행하였다.

13) 고정금리 기업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 : 22년 2/4분기말 35.4% → 23년 1/4분기말 51.6% → 23년 3/4분기말 45.8%

그림 I-8. 기업규모 및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연체율<sup>1)</sup>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합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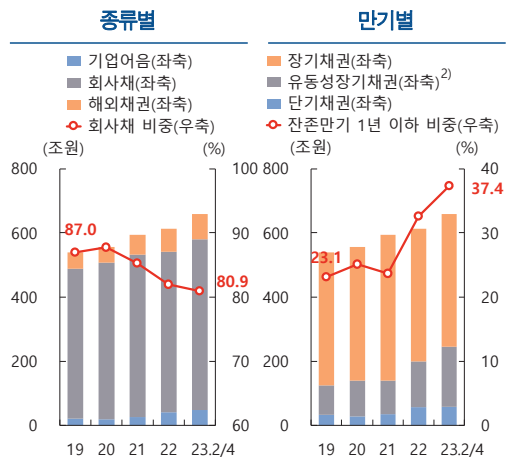
## 나. 채권

### 잔존만기 1년 이하 단기 및 우량물 비중 상승

코로나19 이후 기업신용 중 채권 증가와 관련한 특징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채권 종류별로는 기업어음(CP)이 회사채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회사채 비중은 2019년말 87.0%에서 2023년 2/4분기말 80.9%로 다소 하락한 반면 기업어음 비중은 3.8%에서 7.2%로 상승하였다.

만기별로는, 2023년 2/4분기말 현재 잔존만기 1년 이하인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장기채권(발행만기 1년 이상인 장기채권 중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의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채권 비중이 2019년말(23.1%)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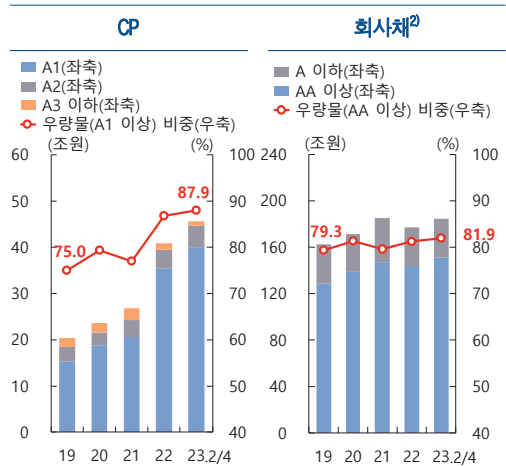
그림 I-9. 코로나19 이후 종류 및 만기별 채권 추이<sup>1)</sup>



주: 1) 비중은 연도별 채권 잔액 대비 종류 및 만기별 잔액 비중  
 2) 발행만기 1년 이상 장기채권 중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신용등급별로는 기업어음과 회사채 모두 대부분 우량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어음은 A1 등급 이상 우량물 비중이 2019년말 75.0%에서 2023년 2/4분기말 87.9%까지 상승하였다. 회사채는 코로나19 기간중에도 우량물 중심의 발행 행태가 지속되었다(그림 I-10).

그림 I-10.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별 채권 추이<sup>1)</sup>



주: 1) 비중은 연도별 채권 잔액 대비 우량물 잔액 비중  
 2) 공모 회사채 기준(사모 제외),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연협인포맥스

### 3. 기업<sup>14)</sup>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코로나19 이후 기업신용이 비은행·중소기업·단기 대출을 중심으로 양적으로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차주 기업이 이익과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기업신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장기업 기준으로 유량(flow)과 저량(stock)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과 자산에 기반한 상환능력별로 차입금<sup>15)</sup>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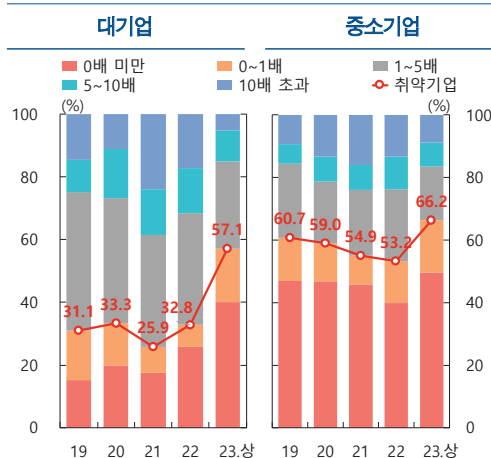
#### 가. 이익 기반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기업이 연중 영업활동에서 확보한 이익을 활용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유량(flow)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이익 기반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차입금 비중이 상승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기준 차입금 분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난해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분포를 유지

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중 이자상환부담이 과다한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전기전자 등 주력업종 업황 부진 및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인해 영업적자(이자보상배율 0미만)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차입금 규모도 확대되면서<sup>16)</sup>, 취약기업 차입금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I-11).

그림 I-11. 이자보상배율<sup>1)</sup>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주: 1) 영업이익/총이자비용(배)

2) 취약기업은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한편 기업의 원금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차입금상환배율<sup>17)</sup>(총차입금/EBITDA<sup>18)</sup>) 기준으로는, 대기업의 차입금 분포는 악화되었으나 중소기업의

14) 이하에서는 2023년중 기업의 재무상황 변화를 시의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 연말 및 2023년 2/4분기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23년 2/4분기말 2,558개, 대기업 1,291개, 중소기업 1,267개)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비해 중소기업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 기업의 총차입금은 재무상태표상 장단기차입금, 장단기사채 및 유동성장기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개념적으로는 자금순환통계상 기업신용 중 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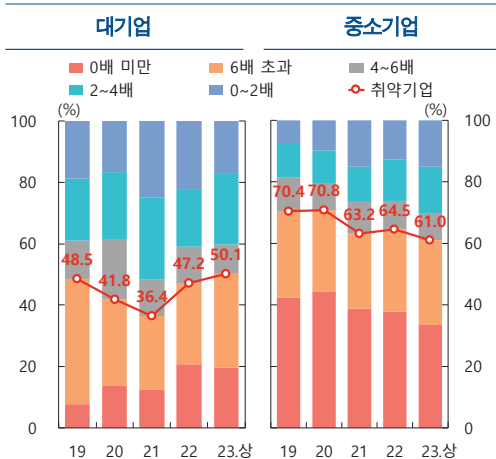
16) 이자보상배율·총차입금 : (삼성전자) 21년말 213.3배·9.7조원 → 22년말 87.3배·3.1조원 → 23년 2/4분기말 -15.9배·25.5조원 (SK하이닉스) 21년말 71.0배·13.8조원 → 22년말 21.7배·18.0조원 → 23년 2/4분기말 -8.5배·25.3조원

17) 차입금상환배율(Debt multiple)은 재무상태표상 총차입금(분자)을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EBITDA)(분모)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로, 기업이 실제 가능한 현금흐름(EBITDA)에 비해 차입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동 배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미 연준과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체로 동 배율이 5~6배를 넘어서는 경우 기업의 상환능력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18)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o sales)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한 것으로, 회계상 순이익과 달리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배제된 순이익을 의미한다.

차입금 분포는 개선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상환 능력에 비해 차입 규모가 과다한 취약기업(차입금상환배율 6배 초과 혹은 0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약기업 차입금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12).

그림 I-12. 차입금상환배율<sup>1)</sup>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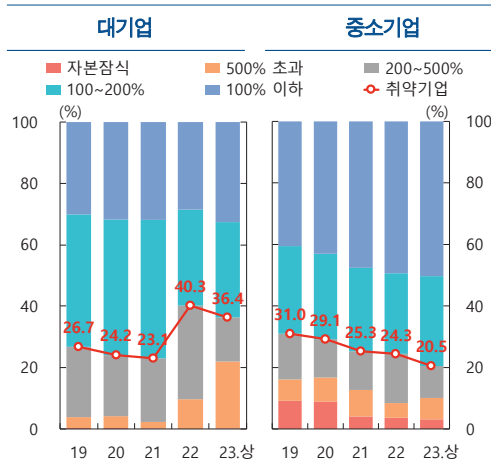
주: 1) 총차입금/EBITDA(배)  
2) 취약기업은 차입금상환배율 6배 초과 혹은 0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 나. 자산 기반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기업이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장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저량(stock)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산 기반 상환능력이 양호한 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이 소폭 상승하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부채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기준으로는, 2021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과다부채 취약기업(부채비율 200% 초과 혹은 자본잠식 기업) 비중이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입금 분포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차입금 규모가 큰 일부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sup>19)</sup>함에 따라 과다부채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차입금 분포는 개선되는 모습을 지속하였다(그림 I-13).

그림 I-13. 부채비율<sup>1)</sup>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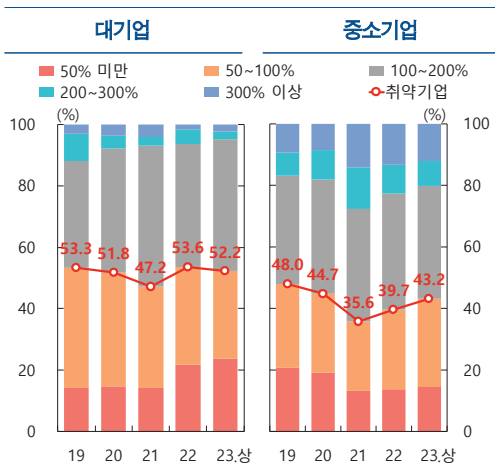
주: 1) 부채/자기자본(%)  
2) 취약기업은 부채비율 200% 초과 혹은 자본잠식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기업의 단기 부채 대비 단기 자산의 비중을 통해 유동성을 평가하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으로는, 유동성 취약기업(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21년까지

19) 부채비율 · 총차입금 : (한국전력공사) 21년말 145.7% · 39.1조원 → 22년말 493.9% · 76.8조원 → 23년 2/4분기말 727.1% · 86.8조원  
(한국가스공사) 21년말 452.6% · 26.4조원 → 22년말 642.9% · 43.1조원 → 23년 2/4분기말 579.5% · 39.5조원

하락하였다가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 2/4분기말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유동성 취약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4).

그림 I-14. 유동비율<sup>1)</sup>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주: 1) 유동자산/유동부채(%)  
2) 취약기업은 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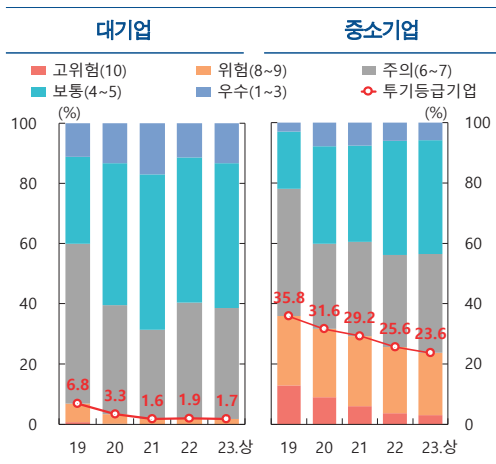
#### 다. 신용등급 및 부실위험별 차입금 분포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용등급 및 부실위험 측면에서 차입금 분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저신용 혹은 고위험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이 하락하는 등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점차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신용등급<sup>20)</sup>을 기준으로 차입금 분포를 살펴보면, 신용도가 낮은 투기등급 기업(KIS 신

용평점 8~10)의 차입금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2023년 2/4분기말 현재 대기업 차입금의 98% 이상, 중소기업 차입금의 75% 이상을 투자등급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었다(그림 I-15).

그림 I-15. 신용등급<sup>1)</sup>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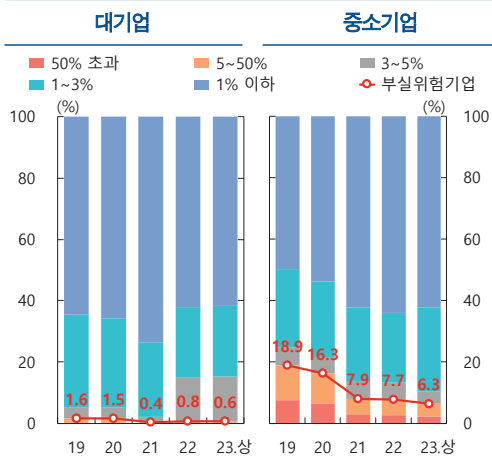
주: 1) KIS신용평점 기준  
2) 투기등급기업은 신용평점 8-10점(B 등급 이하)인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기업의 다양한 재무지표들을 통해 1년 후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이 발생할 확률을 평가하는 부실위험<sup>21)</sup> 기준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부실위험기업(부실위험 5% 초과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대체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차입금 분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2/4분기말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대기업 차입금의 99% 이상, 중소기업 차입금의 93% 이상을 저위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6).

20) 본고에서는 KIS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대상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크게 5단계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등급을 S&P,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비교하면, 우수(1~3)는 AAA-AA 등급, 보통(4~5)은 A 등급, 주의(6~7)는 BBB 등급, 위험(8~9)은 B-C 등급, 고위험(10)은 D 등급에 해당한다. 통상 BBB 등급 이상을 투자등급으로, 그 미만을 투기등급으로 분류한다.

21) 부실위험은 기업이 1년 후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익(이자보상배율, 총자산순이익률), 자산(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및 차입여건(차입금의존도, 차입금평균이자율) 등을 나타내는 재무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을 통해 추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최근 기업부문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I-16. 부실위험<sup>1)</sup> 수준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주: 1) 기업의 재무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을 통해 추정된 1년 후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이 발생할 확률  
 2) 부실위험기업은 부실위험 5% 초과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최근 기업의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를 요약하면, 이익을 활용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최근 일부 대기업의 영업손실 등으로 차입금 분포가 다소 취약해졌으나, 보유 자산을 활용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이익과 자산, 그리고 차입여건(차입금의존도, 평균 차입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종합적인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개선세를 지속하여 현재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4. 과거 위기 시와의 비교

기업신용 레버리지(2023년 2/4분기말 124.0%)가 과거 위기 당시 수준(외환위기 1999년 1/4분기말 113.7%,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3/4분기말

99.6%)을 상회하면서 일부에서는 기업신용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기업신용의 구성 및 기업 차입금 분포를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먼저 기업신용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2/4분기말 현재 회사채, CP 등 기업의 시장성 차입 비중(24.4%)은 과거 위기 시보다 감소한 반면,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간접금융 조달 비중(70.4%)은 확대되었다. 기업특성별로는, 공기업 보다는 민간기업이 여전히 기업신용의 대부분(86.0%)을 보유하고 있다(표 I-2).

표 I-2. 기업신용 구성 비중<sup>1)</sup> 비교<sup>2)</sup>

	신용항목별			기업특성별	
	대출금	채권	정부용자	민간기업	공기업
1997	56.8	41.9	1.2	88.9	11.1
2008	66.0	31.5	2.5	84.6	15.4
23.2/4	70.4	24.4	5.2	86.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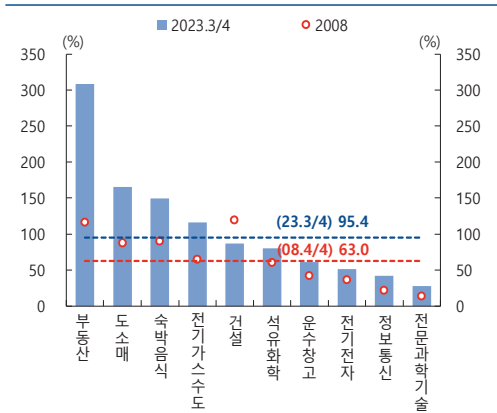
주: 1) 연도별 기업신용 전체 잔액 대비 비중  
 2)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는 각각 1997년 및 2008년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다음으로,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sup>2)</sup>하면, 분석대상 전체 업종 기준으로 평균 대출 레버리지는 2008년말 63.0%에서 2023년 3/4분기말 95.4%로 상승하였다.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도소매, 숙박음식, 전기가스수도업의 대출 레버리지가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큰 폭 상승하여 전산업 평균(95.4%)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 선정 시 분자로 활용되는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가 2008년 1/4분기부터 가용함에 따라 과거 외환위기 당시(97-99년)와는 비교가 불가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09년) 수준과 비교하였다.

43.8% 증가(2008년말 72.4조원 → 2023년 3/4분기말 104.1조원)하였으나, 건설업 GDP(명목, 4분기 합산 기준)가 동 기간중 97.9% 증가<sup>23)</sup>(60.6조원 → 119.8조원)하여 대출 레버리지는 2008년말 119.6%에서 86.9%로 하락하였다(그림 I-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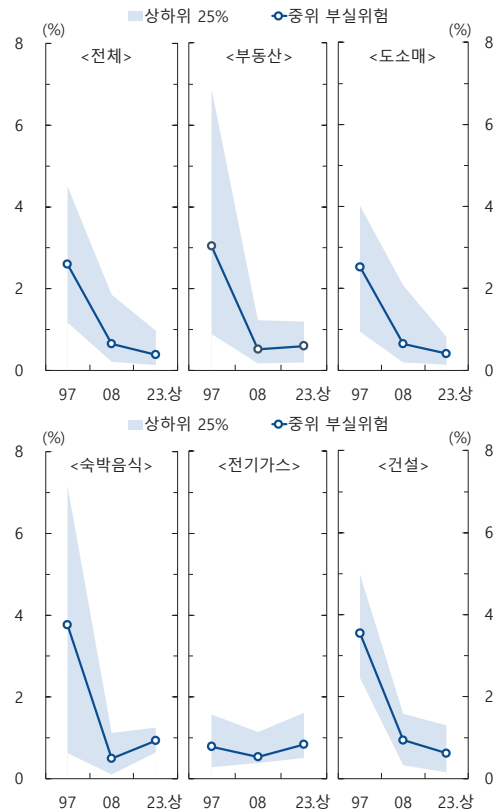
그림 I-17.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sup>1)</sup> 비교<sup>23)</sup>



주: 1) 산업별 생산GDP(명목, 4분기 합산) 대비 산업별 대출금 비율  
 2) 점선은 2008년과 2023년 3/4분기말 기준 분석대상 전체 업종 대출 레버리지를 의미  
 3) 자료 제약으로 인해 외환위기 시(1997년)와는 비교 불가  
 자료: 한국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산업별 대출의 신용리스크 평가를 위해 대출 레버리지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부실위험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산업에서 기업의 부실위험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중위 부실위험 기준으로 부동산·도소매·숙박음식·건설 등 업종은 외환위기 당시 2% 중반에서 3% 후반 수준이었으나 2023년 2/4분기말 현재 모두 1%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전기가스 공급업은 부실위험이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산업 특성상 공기업 비중이 높아 업종내 기업들의 부실위험이 1~2% 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18).

그림 I-18. 산업별 기업<sup>1)</sup> 부실위험<sup>2)</sup>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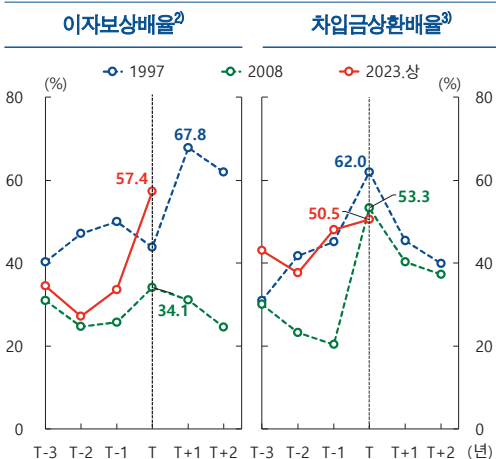
주: 1) 1997년말, 2008년말 및 2023년 2/4분기말 상장기업 기준  
 2) 기업의 재무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을 통해 추정된 1년 후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이 발생할 확률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기업의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기준으로 과거 위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2023년 2/4분기말 현재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나, 지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2008년말 이후 2023년 3/4분기말까지 건설업 명목 GDP(4분기 합산)가 97.9% 증가한 가운데 실질 GDP는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부가치 증대에 건설원가, 인건비 등 물가상승 요인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기업의 이익에 기반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2023년 상반기중 차입 규모가 큰 일부 기업들의 영업손실로 인해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57.4%)이 금융위기 시(2008년말 34.1%)보다는 높지만, 외환위기 당시 고점 수준(1998년말<sup>24</sup>) 67.8%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차입금상환배율 기준으로 보면, 취약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50.5%)이 외환위기(1997년말 62.0%)는 물론 금융위기(2008년말 53.3%) 당시 수준을 하회하였다(그림 I-19).

그림 I-19. 이익 기반 상환능력 취약기업 비중 비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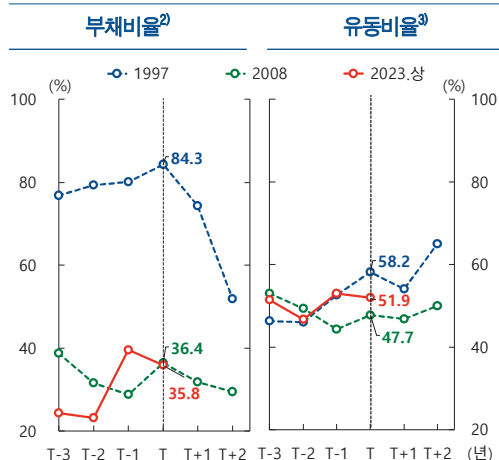


주: 1)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현재(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T를 설정  
 2)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  
 3) 차입금상환배율 0 미만 또는 6배 초과 기업의 차입금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아울러 기업의 보유 자산에 기반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2023년 2/4분기말 현재 부채비율 취약기업(부채비율 200% 초과 혹은 자본잠식 기업)이 상장기업 차입금의 35.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위기 당시(2008년말

36.4%)와 비슷한 수준이나 여전히 외환위기 당시(1997년말 84.3%)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향후 1년 이내 상환이 필요한 부채보다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한 기업(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51.9%)도 금융위기 당시(2008년말 47.7%)보다는 높지만 외환위기 당시(1997년말 58.2%)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20).

그림 I-20. 자산 기반 상환능력 취약기업 비중 비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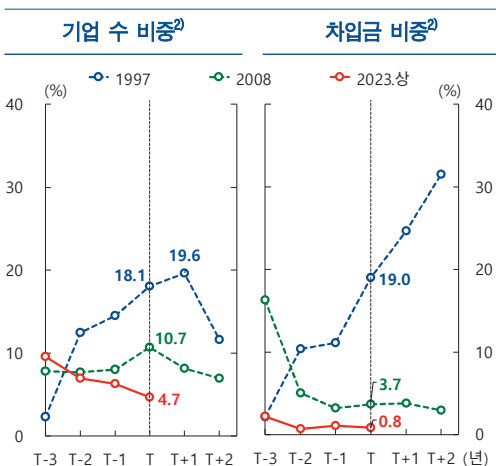
주: 1) IMF 외환위기(1997년말),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말), 현재(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T를 설정  
 2) 자본잠식 또는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의 차입금 비중  
 3) 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마지막으로 기업의 유량(flow)과 저량(stock) 측면의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부실위험이 5%를 초과하는 기업(이하 '부실위험기업') 비중을 과거 위기 당시와 비교한 결과, 2023년 2/4분기말 현재 부실위험 기업 비중은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모두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24) 외환위기 당시 총격이 97년 연말에 발생하면서 98년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97년에 비해 33.8% 감소하고 평균 총이자비용은 43.8% 증가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기준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97년보다 98년에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98년 상장기업의 평균 총차입금은 97년에 비해 2.6% 감소하면서, 차입금상환배율(총차입금/EBITDA) 기준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98년보다 97년에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에는 차입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부실위험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1997년말 19.0%)이 기업 수 비중(18.1%)을 상회하였던 것과 달리, 2023년 2/4분기말 현재 부실위험기업의 대부분이 차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어<sup>25)</sup> 부실위험기업의 보유 차입금 비중(0.8%)이 기업 수 비중(4.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21).

그림 I-21. 부실위험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 비교<sup>1)</sup>



주: 1)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현재(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T를 설정

2) 부실위험 5% 초과 기업의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 5. 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기업신용이 명목GDP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신용 레버리지가 과거 시점(시계열 차원)은 물론 주요국(횡단면 차원)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신용이 양적으로 확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기업의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업 부실위험이 대부분 산업에서 과거 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신용 관련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의 연체율 수준을 크게 하회<sup>26)</sup>하고 있으며,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의 비중도 기업의 이익과 보유 자산을 모두 고려할 경우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신용 레버리지가 과거 위기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인 만큼 다음의 리스크 요인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부동산업의 부가가치(GDP)를 상회하는 대출이 공급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책당국에서는 부동산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은행과 비은행 각각의 순기능을 고려하면서도 권역별 규제차익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의 회복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

25) 외환위기 당시(1997년말) 부실위험기업(319개) 중 대기업(169개)이 전체 부실위험기업의 53.0%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 2/4분기말 현재 부실위험기업(120개)의 80.8%가 중소기업(9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연체율 : (08-09년중 최고치) 은행 1.79%, 저축은행 18.91%, 상호금융 8.61%, 보험 5.41%, 여전 5.48% (23년 3/4분기말) 은행 0.42%, 저축은행 7.08%, 상호금융 5.69%, 보험 0.46%, 여전 2.14%

성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부동산PF 정리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sup>27)</sup>함으로써 부실 PF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신용 중 대출금과 채권 모두에서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물의 비중이 늘어난 상황이므로, 높아진 금리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간 유지될 경우 기업신용의 차환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년중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은 보유 자산 매각이나 추가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 유사시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차환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도 연체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하겠지만, 계속사업이 어렵다고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2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시자료가 없어 본고의 기업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상당폭 증가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과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

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상환능력 및 채무분포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이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은행(2021),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2021.12)」, pp. 31-37

\_\_\_\_\_ (2022), “최근 기업신용의 부문별 유입 현황 및 기업 재무건전성과의 관계 분석”, 「금융안정보고서(2022.6)」, pp. 139-149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9), “Global Corporate Vulnerabilities: Riskier Business”, Chapter 2 in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9(October)

\_\_\_\_\_ (2023), “Soft Landing or Abrupt Awakening?”, Chapter 1 in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3(October)

Kovner A. and Zborowski B.(2019), “Is There Too Much Business Deb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Liberty Street Economics* (blog), May 29

27)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PF대주단협약을 재가동하였으며 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7월 4일).

##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sup>1)</sup>

1. 검토 배경
2. 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 및 운용의 특징
3. 주요 잠재리스크 점검
4.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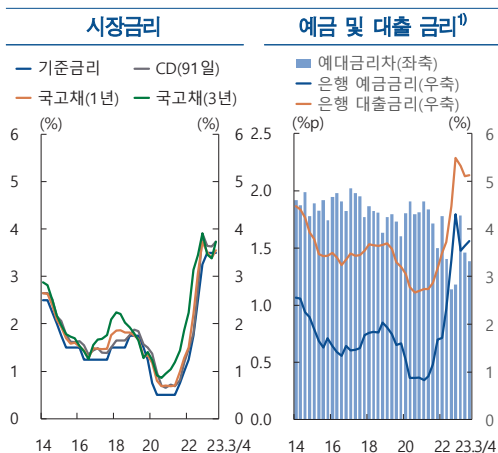
### 1. 검토 배경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대내외적으로 예금취급기관<sup>2)</sup>의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 확대 우려로뱅크런을 겪으며 파산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부각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인출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편 작년 3/4분기 들어서는 예금취급기관간 예금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예금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예대금리차<sup>3)</sup>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I-1). 이와 같이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산측면에서도 대출자산 부실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대손충당금과 자본적정성 등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었다.<sup>4)</sup>

예금취급기관은 안정적으로 예금을 조달하여 대출로 운용하는 영업모델을 지니고 있어 시장성 자금조달과 운용을 주로 하는 증권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높은 금리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되면서 잠재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하 '비은행')을 중심으로 최근 금리상승기 전후로 자금조달 및 운용 측면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

그림 II-1.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 금리



주: 1) 신규취급액 저축성수신 및 일반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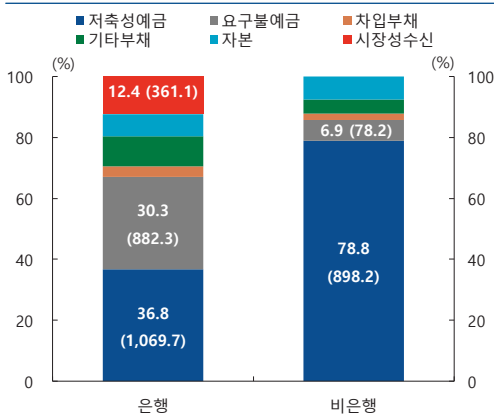
- 1) 본고는 유재원·백운아·박서정·홍준의(은행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송길성(은행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 2) 본고의 예금취급기관은 은행(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제외)과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주요한 자금조달원이 예금인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다.
- 3)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보면 대출금리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은행간 경쟁 강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국면에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대출자산의 부실 가능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고객 이탈 등으로 영업기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4) 금리상승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현안 분석> 「II.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 및 운용의 특징

### 가. 자금조달

예금취급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은 예금(예수금)이며 은행은 비은행과는 달리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채 발행의 용이성, 저축성예금 및 요구불예금의 비중에 따라 은행, 비은행 및 비은행내 업권간 자금조달 부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조달구조를 보면, 은행은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23년 3/4분기말 기준)이 전체 수신의 12.4%를 차지하고, 금리상승의 영향이 적은 저원가성 요구불예금의 비중(30.3%)이 비은행(6.9%)에 비해 매우 높다. 반면 비은행은 전체 수신 중 저축성예금 비중이 78.8%로 은행(36.8%)보다 2배 이상 높다(그림 II-2). 또한 비은행은 수신 유치를 위해 통상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은행에 비해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구조<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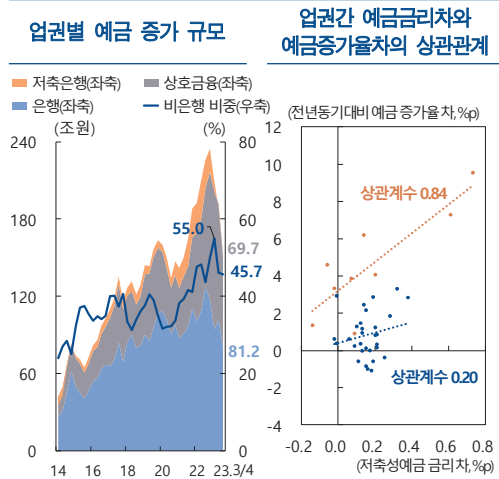


주: 1) 2023년 3/4분기말 구성항목별 비중, 괄호 안은 잔액(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비은행으로의 예금유입 확대와 예금시장에서 은행 및 비은행간 경쟁도 증가

예금취급기관별 수신 변화를 중기적 시계에서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하반기중 예금취급기관으로 유입된 예금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1.4%였으나 2023년 1/4분기중에는 55.0%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예금금리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 기간중 은행과 비은행(상호금융) 간 예금금리 차와 예금증가율 차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는 과거보다 강화(상관계수 0.20 → 0.84)되었다(그림 II-3).

그림 II-3. 예금취급기관 업권별 예금 증가 규모<sup>1)</sup>, 예금금리<sup>2)</sup> 및 예금증가율<sup>3)</sup> 차이 간 관계<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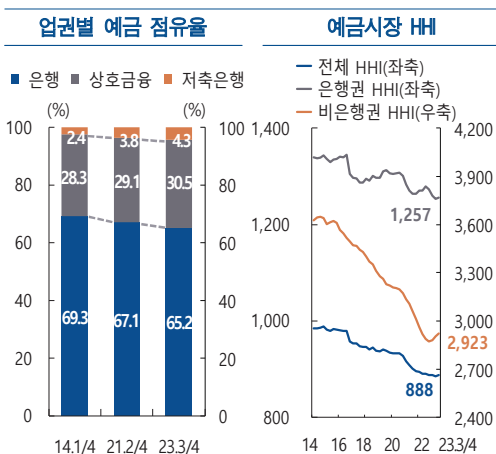


주: 1) 저축성예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 규모  
2) 저축성예금의 금리 차이(상호금융 -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3) 저축성예금의 증가율 차이(상호금융 - 은행, 전년동기대비)  
4) 파란점은 2014년 1/4분기-2021년 2/4분기, 붉은점은 2021년 3/4분기-2023년 3/4분기에 해당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5) 2019년 1/4분기-2023년 3/4분기중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각각 평균 2.56%, 2.77%인 반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평균 2.13%, 은행채(1년 만기 AAA기준) 금리는 평균 2.09% 수준이다.

한편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저축성수신에서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30.7%)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3/4분기말 34.8%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비은행으로의 예금유입 확대, 예금시장에서의 비은행 비중 상승 등으로 인해 만기도래 예금 재예치 및 신규 예금유치를 위한 은행 간, 비은행 간, 은행 및 비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저축성예금시장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정도를 HHI(Herfindahl-Hirschman Index)<sup>6)</sup>를 통해 살펴보면, 동 지수가 2023년 3/4분기말 888로 2014년(985)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개별 금융기관 간 수신 경쟁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4).

그림 II-4.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시장 점유율<sup>1)</sup> 및 HHI<sup>2)</sup>



주: 1) 저축성예금 기준

2)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특히 비은행권 예금시장의 HHI를 보면 2023년 상반기까지 일부 상호금융 단위조합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유치 유인이 강화되면서 비은행권 내 경쟁도가 상당폭 높아진 모습이다. 이는 비은행권에서 저금리 기간중 준조합원 가입 확대<sup>7)</sup>, 비과세 상품판매 증대 노력 등 적극적인 수신 유치 활동을 통해 조달했던 예금의 만기가 금년 중 도래하면서 재예치 필요성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 시장 불안 당시 은행의 자금 수요가 예금시장 내 업권간 경쟁을 일시적으로 촉발시킨 가운데 비은행권 내에서 만기도래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sup>8)</sup>

### 정기예금의 만기 단기화 심화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은행채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비은행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은행과 비은행 사이의 경쟁 촉진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편익이 체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기 예금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예금의 만기가 지나치게 단기화되면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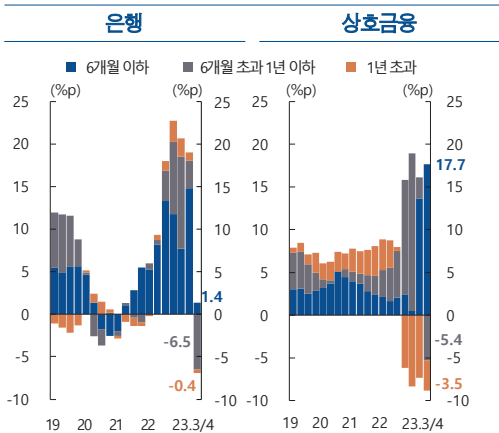
6)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시장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산정되며 독과점시장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HHI가 높아지면(낮아지면) 경쟁도가 낮아진(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HHI가 1,000 미만이면 경쟁도가 높은 시장, 1,000에서 1,800 사이이면 경쟁도가 중간인 시장, 1,800 이상이면 경쟁도가 낮은 시장으로 구분되나 적용기준은 각 나라의 금융제도 및 산업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2023년 9월 현재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가입수는 2015년말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말에는 전년대비 3.3% 증가하며 상호금융의 예금 증가에 기여하였다.

8) 다만, 2023년 3/4분기 들어서는 비은행의 예금이 전분기말 대비 3.0조원 감소하는 등 비은행 간 예금유치 경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금취급기관의 기간별 예금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예금만기 단기화 등으로 예금금리 산정주기가 짧아지고 만기도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예금잔액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예금잔액 변동성에 대한 단기예금(잔존만기 6개월 이하<sup>9)</sup>) 기여도를 보면 은행에 비해 비은행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높아진 모습이다. 이는 금리상승기에 가계가 단기예금 상품을 선호하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장기예금 수신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단기예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II-5).

그림 II-5. 예금잔액<sup>1)</sup> 변동<sup>2)</sup>에 대한 예금만기별<sup>3)</sup>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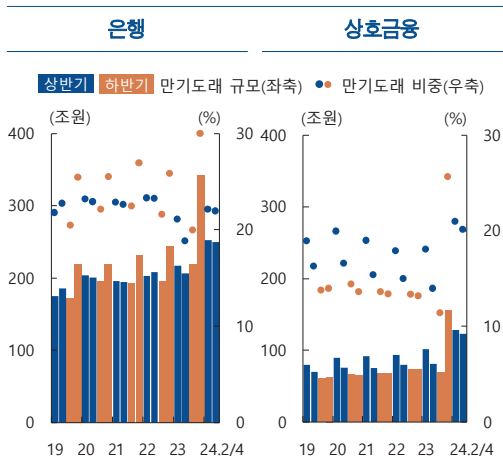


주: 1)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한부예금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잔존만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지난해 말 이후 수신 경쟁 과정에서 늘어난 단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보다는 비은행(상호금융) 예금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수금(기한부예금 기준) 규모

를 살펴보면, 은행(분기평균 251조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상반기 분기평균(204조원) 대비 23.0%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상호금융(분기평균 125조원)은 같은 기간 44.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중 상호금융의 전체 예수금에서 만기도래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상반기에 비해 4.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6).

그림 II-6. 만기도래 예수금<sup>1)</sup> 규모<sup>2)</sup> 및 비중<sup>3)</sup>



주: 1) 2023년 9월말 현재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한부예금 기준  
 2) 2024년 2/4분기는 추정치  
 3) 2024년 상반기 비중은 2023년 9월말 기한부예금 잔액으로 추정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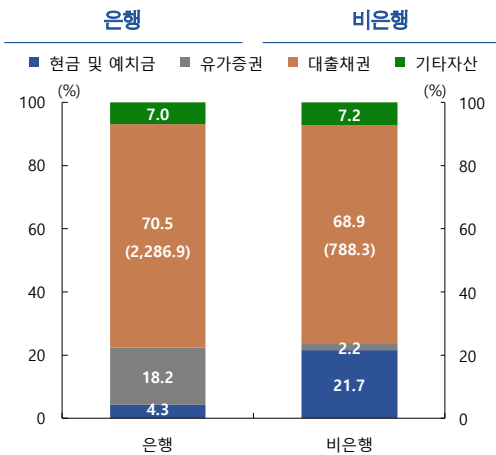
#### 나. 자금운용

예금취급기관들은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유가증권 투자보다는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 및 비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채권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각각 70.5%(2,286.9조원), 68.9%(788.3조원)로, 대출채권이 각 업권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다음으로 유가증권의 비중(18.2%)

9) 특정 시점의 잔존만기는 이미 예치된 예금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해당 시점의 잔존만기와 해당 시점에 신규 예치된 예금의 계약 만기로 구성된다.

이 높은 편이나, 비은행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치금 비중(21.7%)이 유가증권(2.2%)보다 훨씬 높다(그림 II-7).

그림 II-7.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운용 구조<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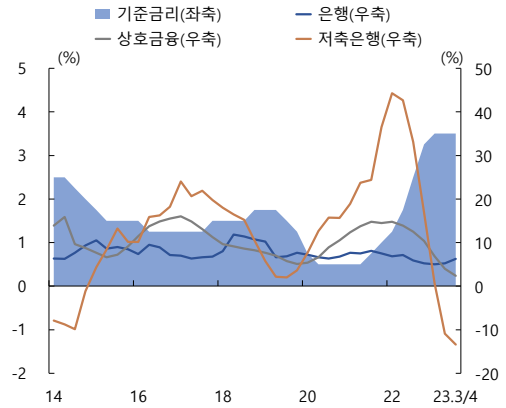


주: 1) 2023년 3/4분기말 구성항목별 비중, 괄호 안은 잔액(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부동산담보대출시장에서 비은행 영향력 증가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자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두 번의 금리인하가 있었던 2020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담보대출<sup>10)</sup>이 비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줄어드는 등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2019년말 이후 부동산담보대출의 분기평균(20년 1/4분기~23년 3/4분기) 증가율은 비은행(10.6%)이 은행(6.6%)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II-8).

그림 II-8. 업권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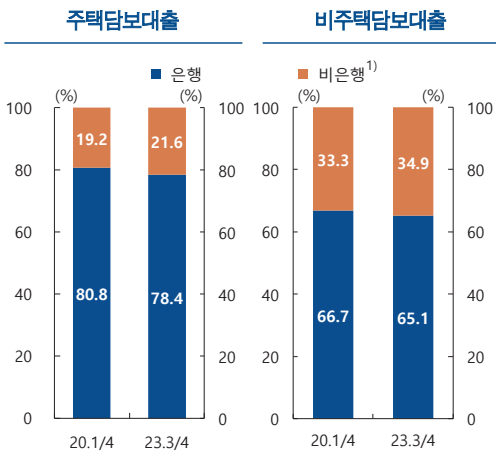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종류별<sup>11)</sup>로 은행과 비은행의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은행의 비중이 2023년말 3/4분기말 78.4%로 2020년 1/4분기말(80.8%) 대비 2.4%포인트 줄어들었으며, 비주택담보대출에서도 은행의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65.1%로 2020년 1/4분기(66.7%) 대비 1.6%포인트 축소되었다(그림 II-9). 반면 비은행은 같은 기간 중 주택과 비주택 담보대출 모두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는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규제 강도와 적용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은행에 먼저 적용된 이후 시차를 두고 비은행권에 적용되는 과정<sup>12)</sup>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이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된 대출 수요자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 가계 및 기업 차주를 포함한 전체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에 해당한다.

11) 담보종류별 부동산담보대출 데이터의 입수가능범위를 고려하여 2020년 1/4분기와 최근 시점을 비교하였다.

12)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전 금융권에 도입된 2014년 7월 이전에도 은행과 비은행 적용 시점이 달랐으며 차주단위DSR 및 금융회사 평균DSR 규제도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였다(2022년 1월 이후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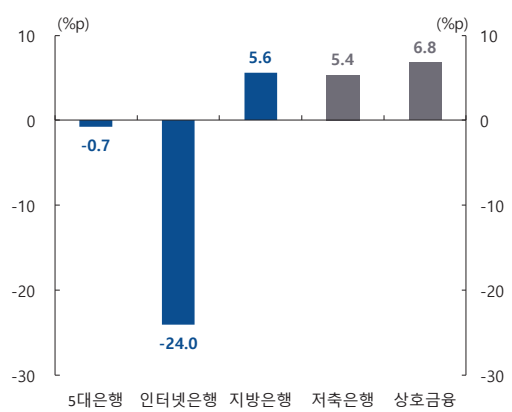
그림 II-9. 부동산담보대출 업권별 점유율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sup>13)</sup>이 높았던 비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금번 금리상승 기간중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였다. 2023년 3/4분기말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수도권 비중은 2019년말 대비 각각 6.8%포인트, 5.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권에서는 5대 은행 및 인터넷 은행<sup>14)</sup>과는 달리 지방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9년말 대비 5.6%포인트 높아졌다(그림 II-10).

그림 II-10. 업권별 수도권 주담대 비중 변화<sup>12)</sup>



주: 1) 2019년 4/4분기-2023년 3/4분기중 변화  
2) 5대 은행은 우리·신한·하나·국민·농협은행,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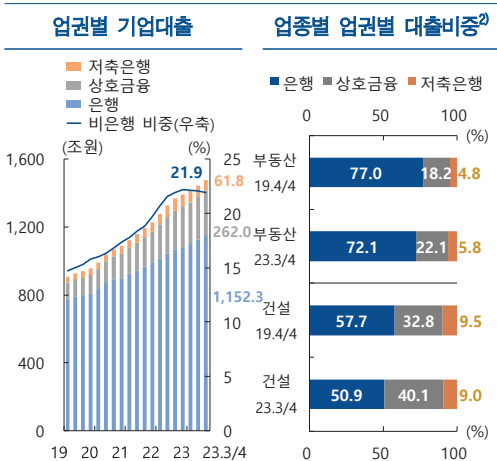
###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중 비은행 비중 확대

기업대출에서도 비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규모는 2019년말 151.0조원에서 2023년 3/4분기말 323.9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예금취급기관 전체 기업대출의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업종별 기업대출 중 비은행 비중은 건설업(19년말 42.3% → 23년 3/4분기말 49.1%), 부동산업(23.0% → 27.9%)에서 각각 6.8%포인트, 4.9%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11).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확대는 안정적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금융중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으로 대출이 쏠리는 것<sup>15)</sup>은 자금의 한계생산성을 낮추고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이 부동산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비은행 전체 대출에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65.4%로 은행(31.8%)보다 높다.  
14) 인터넷전문은행은 최근 전국으로 주담대 영업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비중이 큰 폭 하락(19년말 100% → 23년 6월말 76%)하였다.  
15) 은행 기업대출 중 건설업·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24.0%인 반면 비은행(새마을금고 제외)은 4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11. 예금취급기관<sup>1)</sup>의 기업대출 및 업종별 현황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2) 해당 업종에서 각 업권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3. 주요 잠재리스크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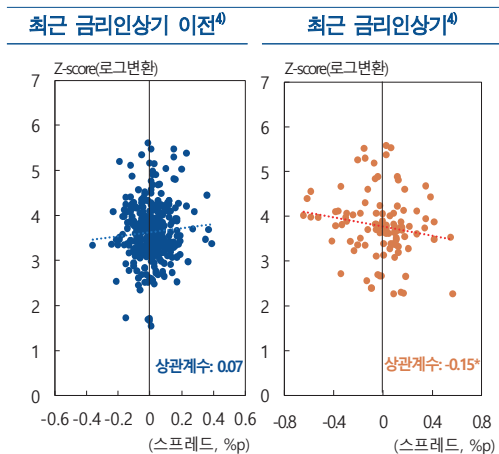
#### 과도한 수신경쟁 재현시 재무안정성 저하 우려

최근 시장금리의 상승폭 제약,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등을 통한 은행의 예금의존도 축소와 같은 금융당국의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예금취급기관의 과도한 수신경쟁<sup>16)</sup> 행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 만기도래 예금 규모가 여전히 예년보다 큰 상황이므로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경쟁적 수신확보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조달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예금취급기관들이 대출금리 인상이나 고위험 대출 확

대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설 경우 가격과 기업의 채무부담 증대와 더불어 연체율, 자본적정성 등 재무지표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금취급기관 간 수신 경쟁이 재무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금리인상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금리상승기 이전인 2016년 1/4분기~2021년 2/4분기중 예금금리 스프레드<sup>17)</sup> 변화와 재무안정성(Z-score)<sup>18)</sup> 간의 유의적인 연관성은 없었으나 금번 금리상승기(21년 3/4분기~23년 2/4분기)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그림 II-12).

그림 II-12. 예금금리 스프레드<sup>1)</sup>와 재무안정성<sup>2)</sup> 간 관계<sup>3)</sup>



주: 1) 개별 예금취급기관의 분기별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예금금리와 CD수익률 간 차이  
 2) 개별 예금취급기관의 Z-score = [(총자산수익률 + 자기자본비율)의 4분기 이동평균 / 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를 통해 측정  
 3) 상관계수의 \*는 10%에서의 유의수준을 의미  
 4) 최근 금리인상기 이전은 2016년 1/4분기~2021년 2/4분기, 최근 금리인상기는 2021년 3/4분기~2023년 2/4분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16) 2022년 하반기 예금취급기관은 부동산PF 관련 금융불안, 일부 규제 정상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확보에 경쟁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17)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수신경쟁의 대응지표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CD수익률의 차이를 통해 계산하였다. 동 스프레드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level)이 아닌 상대적 의미로 특정 예금취급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 시장금리 대비 얼마나 큰 폭으로 예금금리를 인상했는지를 측정한다.  
 18) Z-score(로그 변환)는 [(총자산수익률+자기자본비율)의 4분기 이동평균]/(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로 계산되며 Z-score가 높을(낮을)수록 재무안정성은 양호(저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예금취급기관 간 수신경쟁과 재무안정성과의 관계를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더라도 최근 금리상승기(21년 3/4분기~23년 2/4분기)의 예금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다른 기간보다 예금취급기관의 재무안정성을 더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아울러 예대금리차 수준별로 수신경쟁과 재무안정성 간 관계를 추가 분석해 보면, 금리상승기 예금금리 스프레드 확대와 재무안정성 간 부(-)의 상관관계는 주로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이번 금리상승기 동안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들에서 예대금리차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점<sup>20)</sup>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금융기관들이 향후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경로<sup>21)</sup>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비은행의 취약 부문 부실자산관리 부담 증대

예금취급기관들이 예금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건전성 지표와 대출금리 수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관측되고 있다. 2019년 이후 4년간 분기별 대출금리(t)와 3분기 후 고정이하여신 비율(t+3)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수준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정(+)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난다(그림 II-13).

또한 금리 상승기별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의 시차 변화를 살펴보면 은행과 달리 비은행은 금리 상승 시작점을 2~6분기 후행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높은 금리 수준이 시장 기대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비은행 건전성 지표의 저하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그림 II-14).

19) 2016년 1/4분기~2023년 2/4분기 15개 예금취급기관(일반은행 12개, 상호금융 2개 업권 및 저축은행 79개 전체 1개 업권)의 예금금리 스프레드, 은행 특성변수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3-33호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형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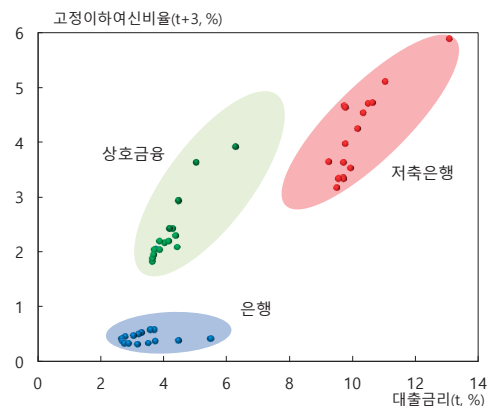
$$Y_{it} = \alpha_1 + \beta_1 \text{예금금리 스프레드}_{i,t-1} + \beta_2 \text{금리상승기}_{t-1} + \beta_3 \text{예금금리 스프레드}_{i,t-1} \times \text{금리상승기}_{t-1} + \gamma \text{은행 특성변수}_{i,t-1} + \nu_i + \epsilon_{it}$$

$Y_{it}$ 는 예금취급기관  $i$ 의  $t$ 분기 Z-score(로그 변환)이며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CD수익률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였다. 금리상승기는 2021년 3/4분기~2023년 2/4분기 기간은 1, 이외의 기간은 0으로 나타낸 더미 변수이며 은행 특성변수는 총자산, 부채 대비 예수금 비중, 자산 대비 대출채권 비중, 연체율 및 이자이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nu_i$  및  $\epsilon_{it}$ 는 각각 은행 및 연도 더미를 나타낸다.

20) 예대금리차 수준별 금리인상기 예대금리차 변화를 보면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의 2021년 3/4분기 예대금리차는 1.79%포인트에서 2022년 4/4분기 1.14%포인트로 0.65%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예대금리차 수준이 높은 예금취급기관은 같은 시기 3.20%포인트에서 3.18%포인트로 소폭(0.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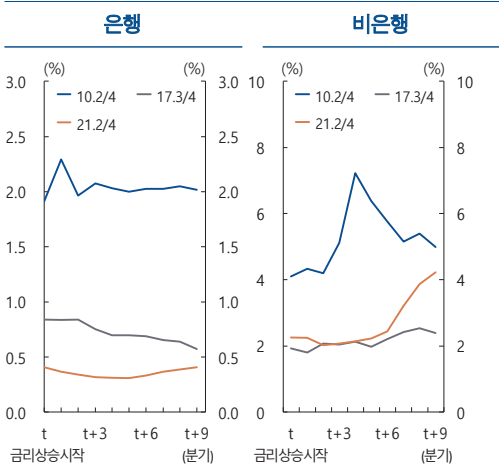
21)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Z-score 구성요소의 분해 결과를 보면, 금번 금리상승기 예금금리 스프레드가 10bp 확대될 경우 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는 18b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가파른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가 총자산수익률의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13. 대출금리<sup>1)</sup>와 고정이하여신비율 간 관계<sup>2)</sup>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2) 업권별로 16개 시점의 대출금리(19년 1/4분기-22년 4/4분기)와 고정이하여신비율(19년 4/4분기-23년 3/4분기)을 3분기 시차를 두고 비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14. 금리상승기별<sup>1)</sup>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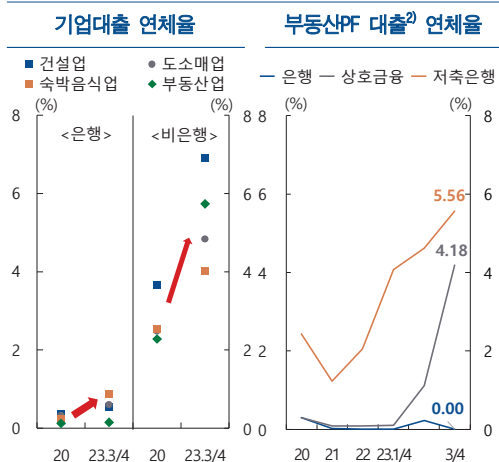


주: 1) ① 2010년 2/4분기-2012년 3/4분기, ② 2017년 3/4분기-2019년 4/4분기, ③ 2021년 2/4분기-2023년 3/4분기를 3차례의 금리 상승기로 구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부동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 3/4분기말 연체율을 2020년말과 비교해 보면, 부동산업의 상승폭이 3.4%포인트(2.3% → 5.7%)로 가장 가장 크

고, 다음으로 건설업(3.2%포인트), 도소매업(2.4%포인트)에서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대출의 경우에도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서는 은행과 달리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그림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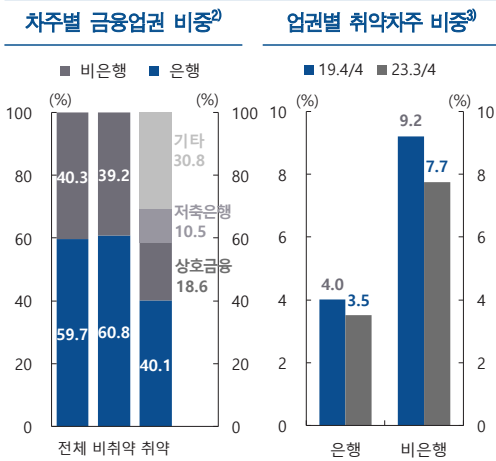
그림 II-15. 업종별 기업대출 연체율<sup>1)</sup>



주: 1) 은행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은행은 외은지점을 포함한 전체 은행,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취약차주 가계대출의 업권별 비중을 보면 2023년 3/4분기말 은행이 40.1%, 상호금융(18.6%) 및 저축은행(10.5%) 등 비은행이 59.9%를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7.7%로 은행(3.5%)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3년 3/4분기말 은행과 비은행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2019년말 대비 각각 0.5%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하였다(그림 I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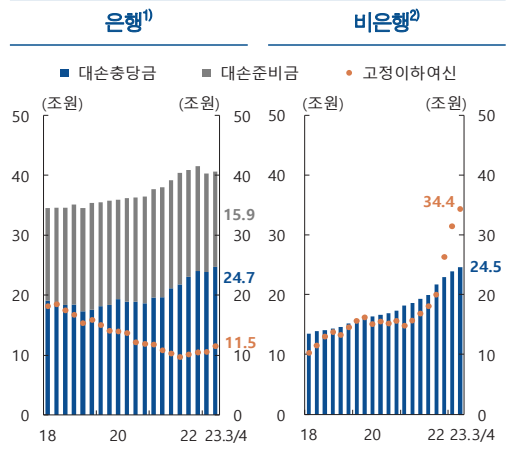
그림 II-16. 업권별<sup>1)</sup> 취약차주 가계대출



주: 1) 은행은 국내은행, 비은행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기타금융업, 대부업을 포함  
 2) 2023년 3/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의 업권별 비중  
 3) 해당 업권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금취급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을 살펴보면, 2023년 3/4분기말 은행은 고정이하여신 규모(11.5조원)에 비해 대손충당금(24.7조원)과 대손준비금(15.9조원)을 양호한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비은행은 고정이하여신 규모(34.4조원)가 대손충당금(24.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sup>22)</sup>(그림 II-17). 은행은 리스크 관리 및 금융당국의 추가 적립 독려 등으로 손실흡수력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 현재 고정이하여신이 단기간에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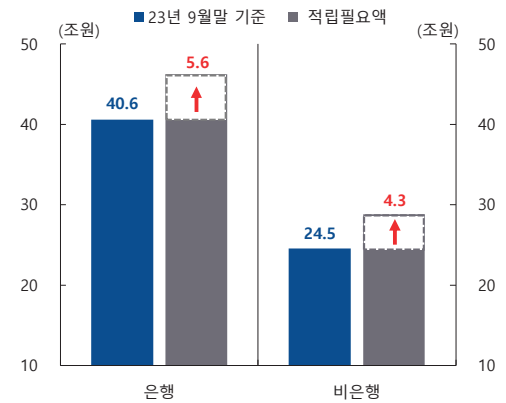
그림 II-17. 업권별 총당금 적립현황



주: 1) 국내은행 전체를 포함하며 대손충당금 + 대손준비금 기준  
 2) 대손충당금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록 은행이 총당금을 양호한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을 상정할 경우 은행도 총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시산된 만큼, 보수적인 상황 전개를 가정하면서 손실흡수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그림 II-18).

그림 II-18. 총당금 적립필요액<sup>1)</sup> 시산<sup>2)</sup> 결과



주: 1)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친 감득규제상 최소 총당금적립필요액, 비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액을 추정  
 2) 2009년말 이후 부실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시점의 부실채권 비중으로 건전성 악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1년 후의 적립필요액을 시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22) 다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모두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감독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다.

## 4. 평가 및 시사점

예금취급기관이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금원인 예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 부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거치면서 예금만기는 단기화되고 조달비용은 크게 높아졌다. 한편 부동산관련 대출이 코로나19 기간을 전후하여 크게 늘어난 상황이므로, 높은 금리 수준이 시장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유동성 상황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상당폭 호전된 가운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적정성이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실흡수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단기시계에서는 만기도래 예금 규모가 확대되고 높은 금리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중에도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안정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sup>23)</sup>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은행 업권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업권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역할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많은 일부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실자산의 상·매각 등을 통한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부실 규모는 확대되고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 보장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2024년부터 부과되는 경기 대응완충자본 적립의 순조로운 이행과 더불어 경기상황을 감안한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대응 여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홍진(2023), “국내은행의 예금 및 자산생산성: 예금시장 경쟁을 중심으로”, KIF연구보고서
- 노유철, 정서립(2023),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71(2), pp. 123-153
- 박경훈 외(2022),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2(27)
- 박정희(2007), “예금금리 경쟁과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 금융학회지, 12(1), pp. 73-106
- 유재원 외(2023),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행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3(33).
- Anginer, D., Demircug-Kunt, A., Zhu, M.(2014), “How does competition affect bank systemic risk?”,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3(1), pp. 1-26

23)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 중앙회의 예수금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금 유출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실시간 예수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동 자료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인프라에 활용될 예정이다.

Apergis, N.(2015). "Competition in the banking sector: New evidence from a panel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and the financial crisis", *Emerging Markets Review*, 25, pp. 154-162

Craig, B. R., Dinger, V.(2013), "Deposit market competition, wholesale funding, and bank risk",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7(9), pp. 3605-3622

Demirguc-Kunt, A., Huizinga, H.(2010), "Bank activity and funding strategies: The impact on risk and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8(3), pp. 626-650

Fiordelisi, F., Mare, D. S.(2014), "Competi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n European cooperative bank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45, pp. 1-16

Fu, X., Lin, Y., Molyneux, P.(2014), "Bank competi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n Asia Pacific",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8), pp. 64-77